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Hav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 일시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 장소 : 느티나무 학교(충북 단양군)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참가비 : 85,000원(접수 후 환불 불가)
- 문의 : 이소율 마리스텔라(010-9216-5658)

● 복사단 여름캠프

- 일시 : 8월 04일(일)~06일(화), 2박 3일
- 장소 : 강릉 옥계성당
- 문의 : 박미옥 도미니카(010-5736-1132)
- * 복사단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여름캠프

- 일시 : 8월 31일(토) ~ 9월 01일(일), 1박 2일
- 장소 : 안산시 대부도
- 참가신청기간 : 7월 14일(일)~ 8월 18일(일)
- 비용 : 1인 3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신연미)
- 문의 : 최소현 로사(연합회회장 010-5735-5140)

● 수험생을 위한 가족 미사

- 일시 : 7월 29일(월), 오후 8시
- 장소 : 소성전

● 전례교육 2차 안내

- 일시 : 7월 28일(일), 오후 1시, 강당
- 강사 : 주임신부님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관심있는 신자

● 전례교육 3차 안내

- 일시 : 8월 04일(일), 오후 1시, 강당
- 강사 : 주임신부님
- 대상 : 본당 모든 성가대 단원
- * 토요일, 교중미사, 12시미사, 청년성가대

● 다음 주일(7/2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 8월 없음	청 소	18구역
------	----------	-----	------

● 수지계산서

2024. 06. 30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374,937,380	선교비	177,584,783
후원금	15,043,860	성무활동비	46,290,616
목적헌금	22,238,000	교육비	2,240,000
기부금	1,431,837	자선찬조비	11,513,240
부속기관수입	8,400,000	행사비	19,888,780
기타수입	40,838,544	인건비	90,570,724
		회의비	1,421,700
		운영비	42,611,760
		세금과공과	3,413,278
		복리후생비	4,586,620
		기 타	24,436,710
		운영수지차액	38,331,410
합 계	462,889,621	합 계	462,889,621

● 우리들의 정성(7월 10일 ~ 16일)

교무금	5,100,000원
주일헌금	5,308,000원
감사헌금	심점순 5만원 임재열 5만원 심명숙 10만원 한다남 30만원 조성옥 10만원 익명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7/21	임종남	오성환	신종구 김덕영 손정주
7/28	이영민	도현만	유숙종 안상록 김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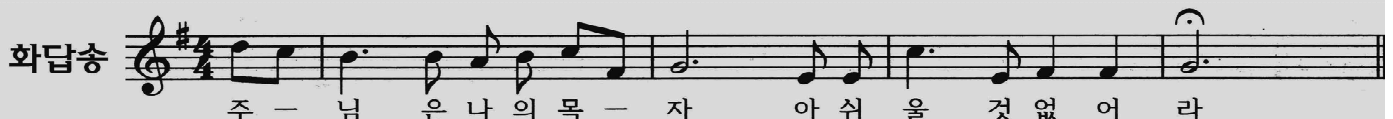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21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손상민 옥윤필	오광운
7/28	장인호	최승일	이운영 이계명 최영만	이화봉



7월 생활환경 캠페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합니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54 ♪ 예물준비 : 212, 220 ♪ 영성체 : 163, 183 ♪ 파견 : 15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시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김주린 미사 전례 지침

부활의 기쁨이 살아나도록

1.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 (루가 22,19-20).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다” (히브 9,12).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미사는 이 십자가 제사의 재현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십자가를 제단에 모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성당에 대형 십자가가 모셔져 있다. 참으로 뜻 깊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은 그 자체로만 보면 아름다운 것일 수 없다. 오히려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광경이다. 그러나 이 광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 오는 동안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익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데에 교회가 떨쳐 버리지 못한 어떤 관성 때문에, 미사 전례를 비롯하여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일종의 그림자에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십자가의 그림자라고나 할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전례와 신앙생활 전반에 부활의 빛과 기쁨 그리고 그 힘이 충분히 스며들지도 발산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교 핵심 신비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각인시켜 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그만큼 부활의 빛이 가리어지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미사와 신앙생활의 전반적 분위기가 필요 없이 무거워지고 활기와 확신이 부족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다.